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재구조화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의 핵심이고, 수능은 이른 바 ‘패자부활전’에 가깝다.
- 수능에서 절대 평가제를 도입하거나 수능을 자격 고사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학교 교육의 탈수능화가 가속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 대입에서 학생부 기록은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 학생부를 활용한 선발 방식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다.
- 학생부 종합전형의 목적은 ‘학교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과 ‘서로 다른 능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교 입학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 내 교육활동만을 바탕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 학생부에 어떤 정보를 담을 것인가? - ‘학교 중심 학생부’에서 ‘학생 중심 학생부’로의 전환. 다양한 영역에서 발현되는 학생의 소질과 역량을 보여주는 정보. 학생의 동기와 수행 과정에 대한 정보. 학생의 학업 성취와 발전 과정에 대한 정보. 교과 등급이 낮은 학생에 대한 관심과 기록.
- ‘학교 중심 학생부’에서 ‘학생 중심 학생부’로의 전환 - ‘학교가(선생님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가’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학생이 주어로 기술된 학생부.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성장했는가’에 대한 개별화된 기록’. 결과만이 아니라 배움의 동기,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까지 기록한 학생부.
- 학생부 기재요령 - 학생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기록. 한 학기에 걸친 논술, 토론, 교과 융합 활동의 평가로 전환. 학생의 준비과정, 학생의 참여 정도, 평가 기준과 방법, 결과, 학생의 후속 활동을 기록. 현재는 수상 관련하여 어느 것도 기록할 수 없다.
- 학생부 각 항목의 정보가 학생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학교 내 수업 방식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 교과를 중심으로 각 항목을 융합하거나 여러 항목을 융합한 형태의 학생부로 전환한다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 개인이 성장하는 모습이 담겨진다.
- 교실 수업의 질적인 변화, 정규수업과 학내 활동의 연계, 교사 간 관계 및 교사와 학생 간 관계 변화 등 고등학교 교육과 학교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 대학이 원하는 정보와 고등학교가 기록하고 있는 정보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야 한다.
- 학생의 성장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학생의 진로와 전공에 대한 준비, 자기주도적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 토론과 모둠 발표, 과제 연구, 프레젠테이션, 교과가 통합된 주제별 수업,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계발하는 수업과 같은 수업 형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I.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학생부 기록의 주체는 학교의 장. 대상은 학생 “개인”. 기록방법은 종합적인 관찰·평가. 법이 정한 학생부의 목적은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과 평가를 통해 학생이 교육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대학은 그 학생부의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 학생부를 학생지도에 활용한다는 측면과 학생선발에 활용한다는 측면은 강조점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활용 주체가 다를 뿐이며 이 역시도 동일한 정보를 기초로 한다.
- 실제 학생부는 학교(교사)의 교육활동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욱 확대 및 활성화되려면, 법이 규정한 대로 학생의 성장과정을 관찰·평가한 정보가 학생부에 담겨야 한다.

1.1. 유의사항

- 학생의 꿈과 끼 탐색활동을 통해 학생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충실하게 기록.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내용 간략히 기재.
-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된 활동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 지양.
- 항목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과장 기재, 허위 기재를 금지.
- 학생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충실히 기록.
- 학생의 성장과정에 대한 정보와 학생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기록.

1.2. 처리 요령 해설

- 학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 서술식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 금지.
-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볼 수 있으려면 ①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의 정착, ② 교사가 학생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심, 역량, 시간적 여유 확보, ③ 모든 교사가 학생을 상시로 관찰하여 기록을 누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의 고등학교는 무엇을 갖추고 있을까.
- 학생 모두를 꾸준히 상담해야 하고 그 기록을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
- 기재 요령에 따르면, 상담을 통한 확인 과정을 거쳤는지는 결국 학교장의 책임이다.

1.3. 수상 경력

- 교내 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 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 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 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교외 상은 기재 하지 않으며, 교내 상은 수상 경력에만 입력한다. 학생부 다른 항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할 수 있지만, 수상과 관련된 내용은 수상 경력에만 기재할 수 있으며 다른 어느 칸에도 기재할 수 없다.

1.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각종 민간자격증과 국제공인자격증은 입력할 수 없음.
- 13개 부처청의 59개 종목의 자격증 및 인증이 한시적으로 기재되고 있다.

1.5. 진로희망사항

- 학급 담임교사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영역에 입력한다.
- 진로 희망을 위해 학생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함께 기재 - ‘진로희망사항’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과 연계.
- 진로희망에 따른 활동 - 교과에서 보여준 진로희망 관련 활동의 경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 담당 교사가 기재하고, 비교과 영역은 담임교사가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에 기록.

- 진로 탐색과정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직업 명칭으로 기록해야 할까.
- 학생의 학교생활을 관찰하고 기록할 때, 또 이를 평가할 때 부모의 희망사항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1.6. 창의적 체험활동

- 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특기사항’란에 학급 담임교사나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거나 활동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 ‘진로활동’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단위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최소화된 프로그램을 학생 개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 진로활동 - 활동 전후의 노력과 결과를 학생별로 기재. 예컨대 학생이 대학을 탐방하기 전에 준비한 내용을 기술하고, 행사 후에 학생이 얻은 지식과 동기 부여의 내용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에 기록. 행사 전 준비 보고서를 받고 행사 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받아 학생들과 더불어 평가.
- 자율활동 - 학교 간에 차별화하거나 학생별로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에게 자율성을 인정. 여러 세부적 활동들 중 상당 부분의 계획, 운영을 학생들에게 맡겨야 한다.
- 동아리활동 - 자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교사 관찰, 포트폴리오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학교가 자율 동아리의 권장, 오픈코스웨어를 통한 학습, 독서활동을 통한 학습 등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자율동아리는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기 초에 구성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구성된 자율동아리활동은 입력하지 않는다.
- 봉사활동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활동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입력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장이 정한다. 대학의 관심은 학생의 봉사 활동 누적 시간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와 마음이다. 따라서 학생이 수행했던 봉사 활동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면서 해당 학생이 왜 특기할 만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학생회나 학생 개인이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학생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이해, 협동 의식의 고취 등 학생의 다양한 변화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봉사 활동을 왜 하게 되었고, 지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봉사활동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삶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지 기록된다면 학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7. 교과 학습발달상황

-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직무능력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력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장이 정한다.

-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텡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논문(학회지), 도서 출간, 발명특허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무엇을 기록할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새로운 예시가 필요하다.
- 대학은 학생의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 학생의 관심과 열의라는 발전가능성에 주목한다.
-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과 차별화되려면 바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이 얼마나 충실하게 학생 개인의 정보를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 공인인증시험 관련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은 입력할 수 없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은 입력 가능하다.
- 학업 역량, 학생의 학업 태도,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록 - 수업이 바뀌어야 학생에 대하여 기록할 내용이 만들어진다.
- 한 학기의 수업 결과 목표 도달 정도와 학습에 참가한 태도를 기록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기록하기보다 학생이 반응하고 성장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 교과와 관련된 학생의 자율적 탐구 - 교과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자기주도적으로 연구하도록 장려한 뒤 이를 적극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 학생 스스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공부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펼쳐 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더라도 그 실패의 경험도 중요하다.
- 수상을 하지 못한 학생이 노력한 과정도 교사가 학생의 성장 과정으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1.8. 독서활동상황

- 독서분야 및 읽은 책, 독서성향 등 특이사항을 사실 위주로 교과담당교사가 입력(성적-성적처리-과목별 독서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도 입력(학생생활-독서활동상황)할 수 있다.
- 학생이 독서기록을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하면, 교사는 이를 기초로 상담을 한 뒤 입력한다.
- 책을 선택한 동기, 학생의 이해 수준, 독서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들어가야 한다.
- 대학은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독서를 하게 되었고, 독서는 학교 내 활동의 어느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지, 독서 후 결과가 어떻게 발현되고 활용되었는지 알고 싶다.
-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려면 교과별 교사가 제시한 책과 함께 학생 스스로 골라 읽은 책도 적극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독서의 동기, 이유도 중요하지만 독서 후에 학생에게 나타난 변화도 중요하다.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과 이에 대한 심화 학습의 내용을 독서 기록과 잘 연계하면 좋다. 독서의 양보다는 질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해야 하며, 학생의 독서 성향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한다.

1.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
-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 학습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예체능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장점과 단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 현행 대입 공통 추천서 양식의 평가항목 - 학업 관련 영역 : ① 학업에 대한 목표의식과 노력, ②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③ 수업 참여도 / 인성 및 대인 관계 영역 : ① 책임감, ② 성실성, ③ 리더십, ④ 협동심, 5) 나눔과 배려
-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핵심인성 요소에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외에 ‘예절, 효, 정직, 책임, 소통’이 추가되었다.

1.10. 기타

- 교육 관련기관(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주관한 행사, 청소년 단체 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기재 가능

<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 > (교육정보시스템, 2015.03. 현재)

영역	세부 항목	최대 글자수(한글 기준)
4. 수상 경력	수상명	100자
	참가대상(참가인원)	25자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명칭 또는 종류	100자
6. 진로희망사항	희망사유	(학년별) 200자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 특기사항	1,000자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500자
	봉사활동 특기사항	500자
	진로활동 특기사항	1,000자
	봉사활동실적 활동내용	250자
8. 교과 학습발달상황	일반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500자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500자
	예체능과목 특기사항	(과목별) 500자
	개인별 특기사항	500자
9. 독서활동상황	공통(학급담임이 입력)	1,000자
	과목별(교과담임이 입력)	500자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00자

* 6~10항의 최대 글자 수는 학년 단위

- 교사의 평가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신뢰할 만한 기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 학교의 전체 교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하고 학생부에 무엇을 기록할지 고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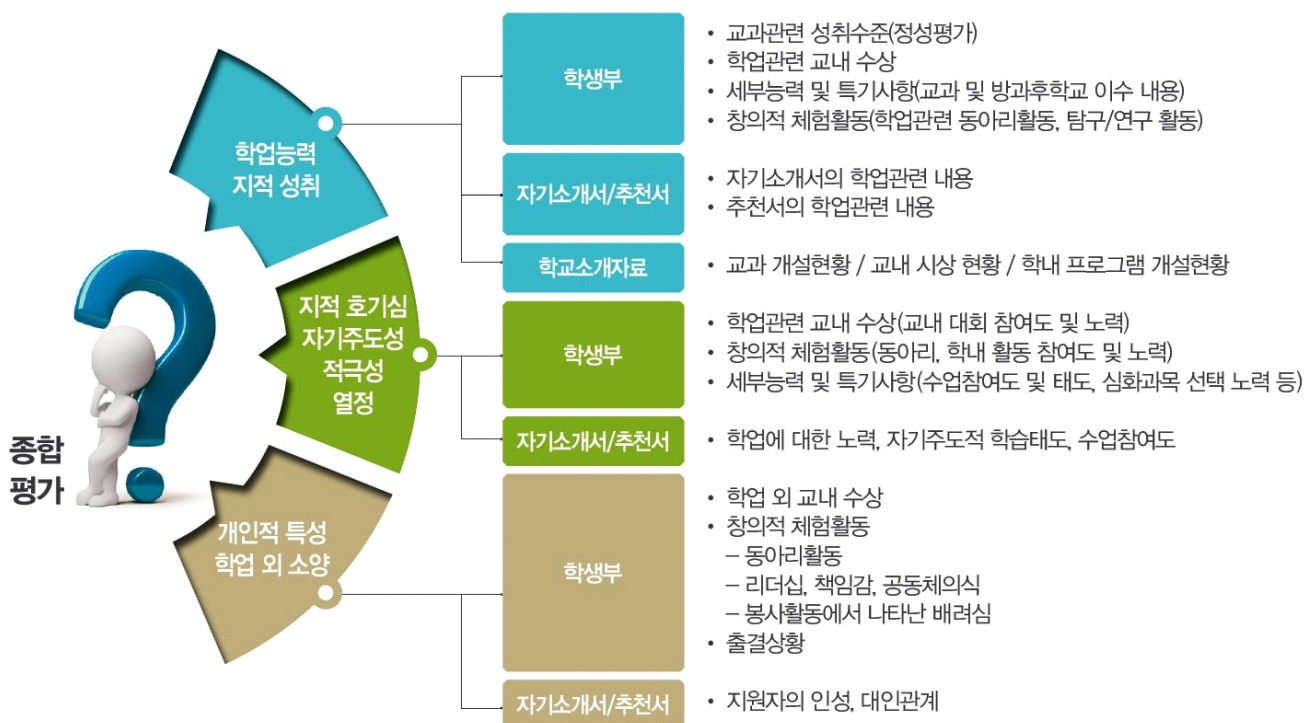
2. 학생부 기재의 현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훈령 제4조, 2015)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학생 한 명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관여하고 있다.
- 당해 연도는 자유롭게 입력과 수정이 가능하지만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봉사활동 실적 누락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오류를 발견한 당해 업무 담당자(학급 담임교사, 업무 담당교사 등)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력 자료를 정정할 수 있다.
- 현행 훈령에 의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교사들이 기술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그 다음 해가 되어야 보게 된다.
- 학교생활기록부는 1년 동안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수업과 평가에서 학생의 참여 및 수행 수준과 특징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해당 학생의 성장 스토리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업-평가-기록의 일체’ :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중심 평가. 수업 장면에서 수업과 평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며, 수업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학생의 활동을 관찰하여 이를 기록으로 담아내야 한다.
- 최근 수업 중에 ‘관찰일기’를 기록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업 중 학생의 활동을 바로 기록하여 나중에 종합하는 형태이다.

II.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구조와 재구조화

1. 학생부 종합평가의 체계



평가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세부 내용
학업 역량	교과 학습 발달상황	학업성취도(정성평가) / 교과 이수 내용, 수준
	학업관련 수상경력	학업내용 및 성취수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학습 내용 및 지적 성장 내용 방과후학교, 과제연구 등 교과 학습내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과제연구/독서/탐구/토론/글쓰기 등 학업관련 활동
	독서활동상황	독서역량, 사고력
지적호기심 학업 의지와 동기 자기주도성 (적극성·능동성)	학업관련 수상 경력	교내 대회 참여도 및 준비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학내 활동 참여도 및 준비과정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업 참여도 및 태도 / 주도적 학습과정 및 심화 노력
	독서활동상황	지적호기심, 관심분야
개인 특성 학업 소양 학업 외 소양 인성	학업 외 수상 경력	리더십, 책임감, 협력, 희생, 공동체의식, 사회성 등 개인적 소양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1. 학업 역량

- 학업 능력 : 학생이 대학에서의 학업에 필요한 능력을 잘 갖추었는지의 여부. 고등학교 학업활동 전반을 고려하는 정성 평가.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적용 능력, 적극적 탐구심과 호기심,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학습태도와 의지,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동반될 때 비로소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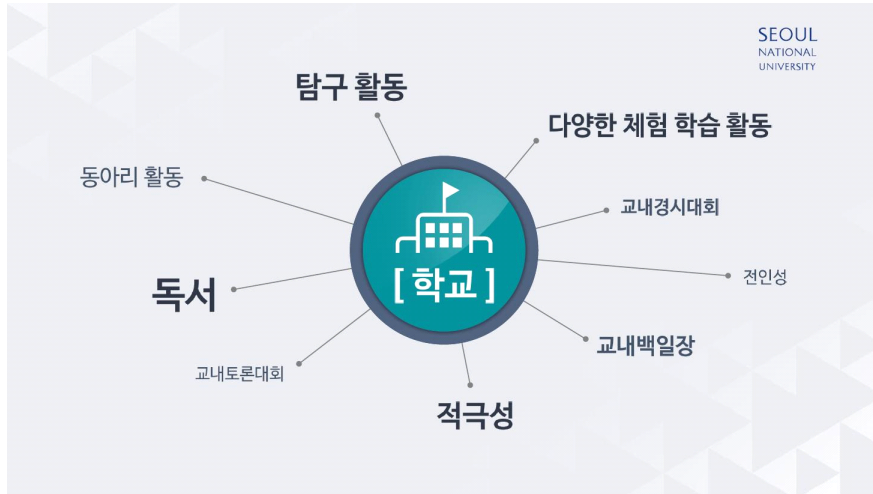


- 교과 학습 발달상황 : 교과 성취도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다. 기초 교과 및 선택 교과목 제공 상황을 고려하고, 지원자가 선택한 과목의 이수 내용을 통해서 학업소양, 지식의 폭, 깊이를 판단한다. 또한 원점수, 표준 편차, 과목평균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이 실제 습득한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학생의 교과별 학습활동의 내용과 과정, 노력의 양과 수준, 그리고 수업시간에 활용한 도서나 교재, 토론/발표 등 학습방법, 학생의 개별적인 학습태도, 학습내용의 총량과 지적 성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교과와 연계된 방과후학교 활동, 독서활동, 과제연구, 교내 탐구발표대회, 토론대회 등에 참여한 과정과 노력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학생이 쌓아 온 학업 역량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 학생의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 그리고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
- 학업관련 교내 수상경력 : 단순한 수상 결과만이 아니라 참가 대상, 수상 인원, 준비과정, 학생에게 주었던 영향 등 지원자가 속한 교육 환경 내에서 수상의 우수성을 파악한다. 특히 수상을 위한 학생의 노력의 과정, 준비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지식과 경험, 소양, 성취수준 등이 중요하다.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병행 비교하여 학생의 지적 성장과정과 수준을 평가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실험이나 탐구의 내용과 기간, 참고서적, 결과 발표 과정, 활동 이후의 피드백활동 등에서 지원자가 “개인적으로” 수행한 노력과 성취 등을 고려한다. 학업 능력 평가에 활용되는 것은 지원자가 개인적으로 진로와 관련한 학업 노력을 보인 부분이다. 희망은 있으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그 희망은 대개 흘러가는 바람과 같다.
- 독서활동 : 독서활동의 기간과 빈도, 도서 선정 내용, 결과에 나타나는 지원자의 사고력과 지적 성장 내용을 판단한다.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수상과 연계된 독서도 의미 있고, 학생 스스로 행한 독서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그 책을 읽게 되었는지, 책을 읽고 나서 무엇을 하였으며 학생의 지적 호기심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세밀하게 본다.

1.2. 학업 의지와 태도

-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 그리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태도와 열정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평가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나는 학생의 자기주도성, 학업

의지, 열정, 적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 학업 관련 교내 수상경력 : 교내 수상 경력을 통해서 학업 성취 수준과 학업 역량을 파악. 수상분야와 참여도를 통해서 지원자의 학업 소양과 관심 분야, 학습 기회에 대한 도전 등 학업 성향을 파악. 특정 분야에 꾸준한 수상 기록이 있다면 해당 분야에서 교내에서 인정받는 소양을 지녔다고 생각. 지원자의 적극성이나 도전적인 학업 자세를 찾아 평가.
-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적극적인 독서활동, 글쓰기, 탐구, 연구, 실험, 토론 등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노력해 왔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활동이라도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인 노력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진정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는지, 어려움에도 도전하여 조금씩 더 깊이 있는 지적 성장을 위해 노력했는지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교과별 학업 성취도가 학기별 수치로 표현되는 ‘결과’만을 보여 준다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정과 성장의 기록을 보여준다. 대학은 수업과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이 보여 준 주도적인 학업 노력, 열의와 관심, 성취 수준, 다양한 탐구 방법의 모색 등 의미 있는 지적 성취에 대한 교사의 관찰 결과에 주목한다. 교과 관련 독서, 토론, 글쓰기, 탐구/연구 활동, 실험, 교내 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학습 경험에 대한 내용을 교사가 기록하였을 때 학생의 학업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 독서활동 : 독서는 학교생활의 근본. 고등학교에서의 학습은 문제풀이가 아니라 독서를 통한 지식의 확장이 그 요체. 교과 학습에서 충족되지 못한 지적 호기심은 독서에서 채울 수 있고,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의 주도적인 학습 수단으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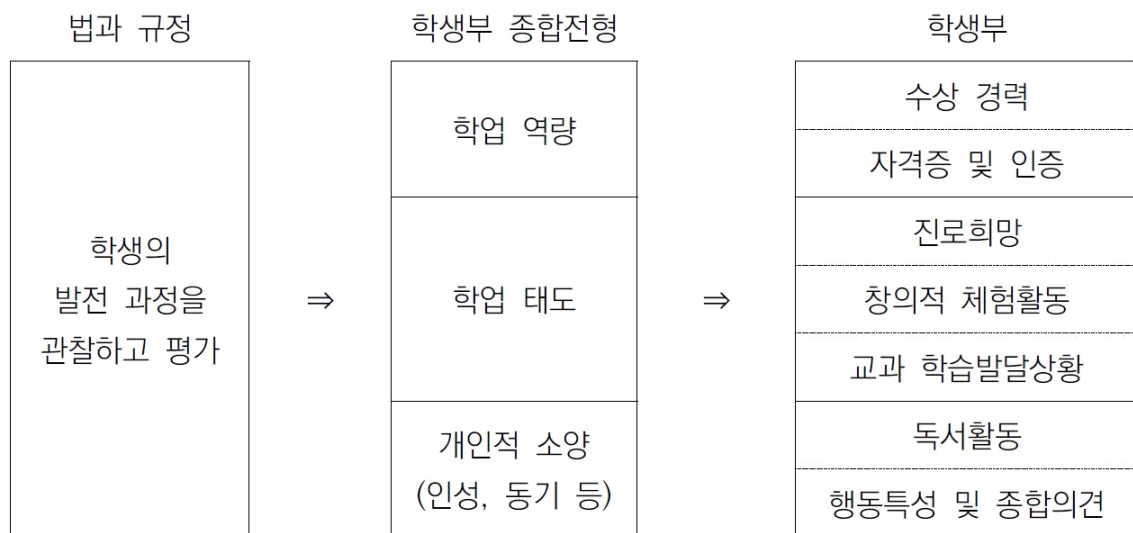


1.3. 개인적 특성과 소양

- 함께 더불어 생각하고 연구하고 살아가기 위한 연습, 사회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양을 쌓아 가는 과정과 경험을 본다.
- 학업 외 교내 수상경력 : 수상과 관련한 학교생활 내용, 수상의 근거와 수상하기까지의 과정이 현재는 규정상 기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생부의 다른 항목, 자기소개서 또는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고 있다.
-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학교생활을 통해서 지원자의 성품뿐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각 항목과 함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통해 학생의 대인 관계 및 인성 등 개인적인 특성을 살펴본다. 수능 과목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경험을 쌓고 소양을 키우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지낼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길 바란다. 눈앞의 개인적인 이익과 가시적인 실적에 매몰되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지는 않기를 기대한다.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도 학생의 마음이 중요하며, 학생의 마음과 태도가 관찰된 기록이 있는지 살펴본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각 학년별 학교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학교생활에 대한 총평. 학생의 학업 특성도 기술되어 있지만, 학교생활 전반에서 나타난 대인 관계 특성이나 배려심, 공동체 의식 등 개인적 성향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일종의 추천서로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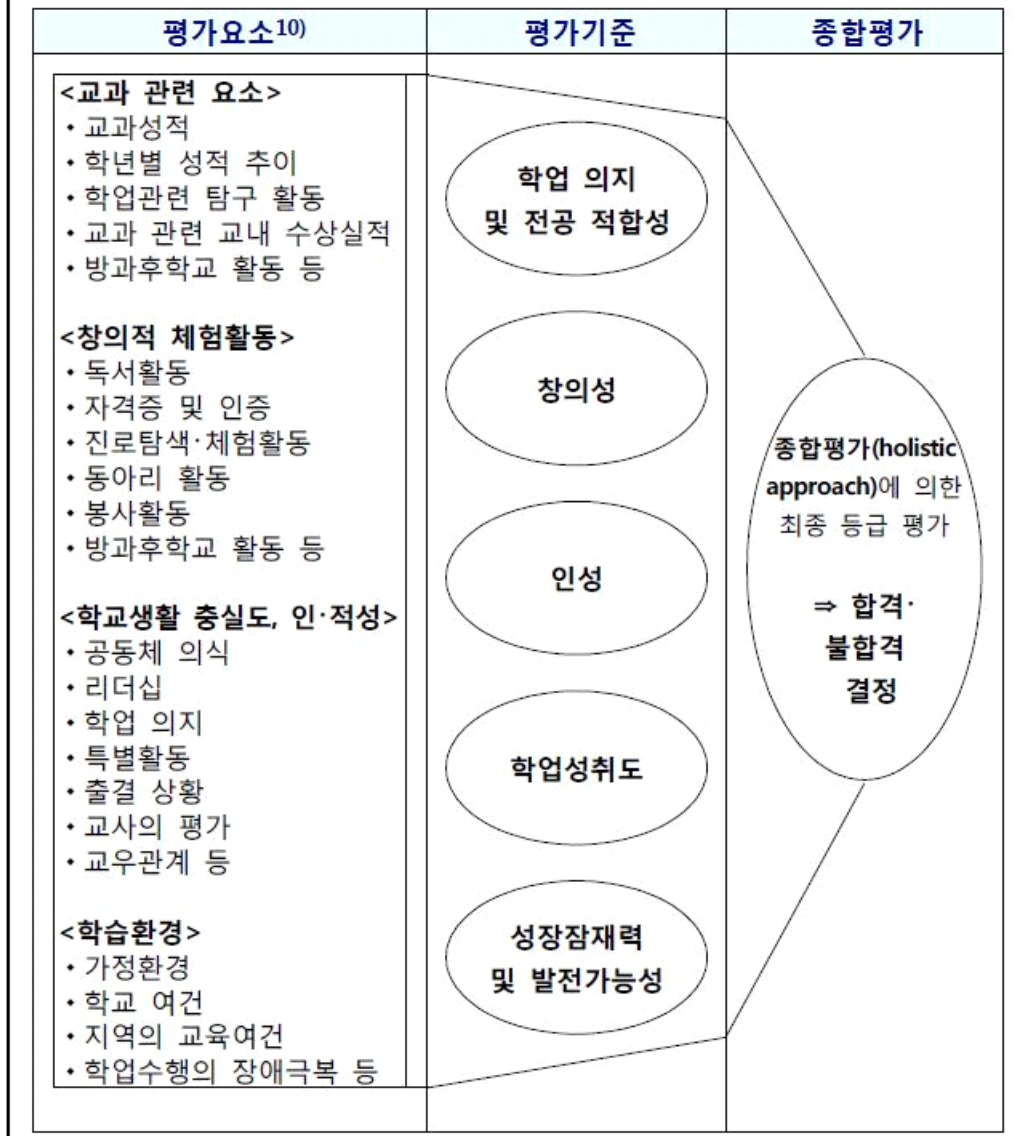
2. 학생부 정보의 구조 : 사실 vs 관찰 및 평가

- 법과 규정은 학생부를 학생 개인이 학교 교육을 통해 발전해 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평가한 기록으로 정의한다. 대학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개인적 소양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한다. 학생부는 학생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나누어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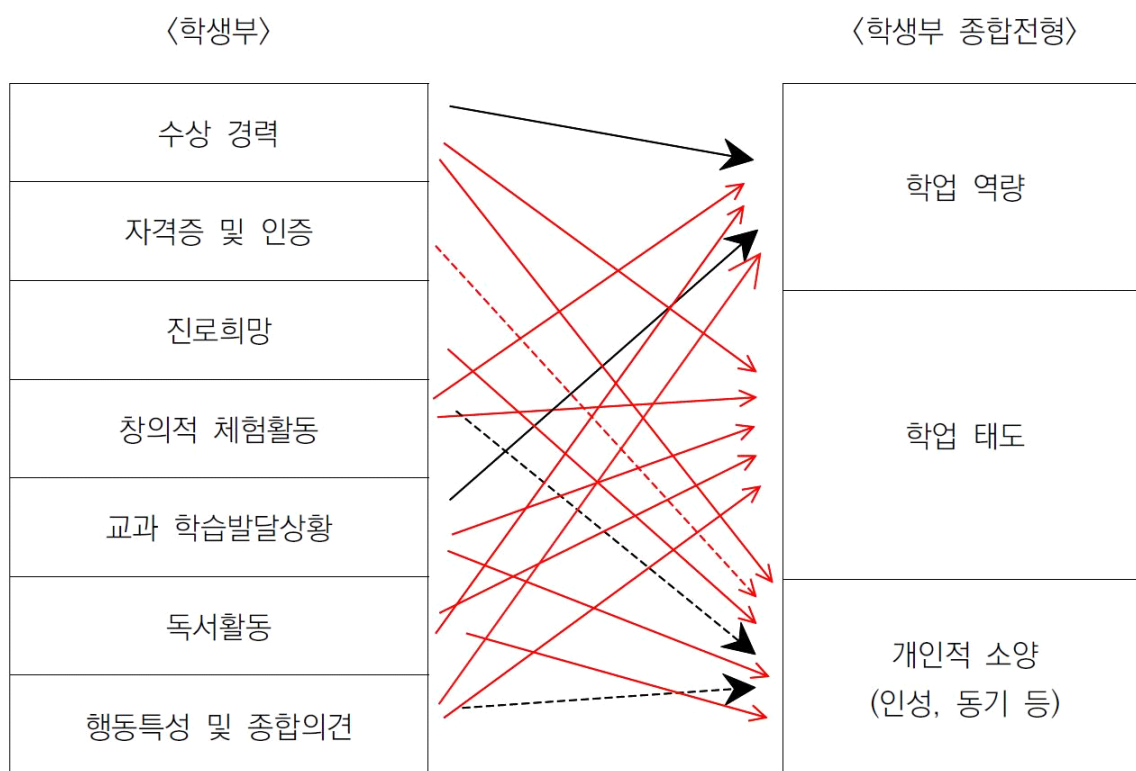
- 학생부 정보의 구조 :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과 학생부 세부 영역 사이의 관계. 학생부 세부 영역의 기록이 어떻게 조합되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영역으로 모이고, 학생부 세부 영역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무엇이 학생을 평가하는 정보로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관계도(關係圖).
- 정보 불일치 : 대학은 학생 개인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학생부는 학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 정보란 구체적으로 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보여주는 정보, ② 학생 개인의 동기와 수행 과정에 대한 정보, ③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정보를 말한다.

【참고자료】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모형(예시)



- 고등학교는 학생에 대한 평가 정보를 생산하고, 대학은 고등학교가 제공해 준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두 가지 필수 요소이다.
- 학교 수업과 교내 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개인이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고 평가한 교사의 의견은 무엇인지가 주요 정보이며, 학교 밖에서 학생이 수행한 사실도 일부 기록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부에서는 학생 개인이 보이지 않는다.
-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본질적으로 미미한 교과 점수의 차이를 무시한다. 비교과에 해당하는 수상은 수상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평가에 반영할 정보가 없다. 그러므로 수상 경력은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교과와 구별되는 새로운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학생의 진로는 변할 수 있으므로 학생부에 기록된 직업과 지원 학과 사이의 관련성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 학과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현재 그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와 같은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학교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이면서 동시에 기록하는 교사 개인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 모든 학생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여 잘 이해하였고 학력이 향상되었다”고 동일하게 기록하면 곧 그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학생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리고 관찰과 평가에는 근거가 기재되어야 한다.

- 독서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면 독서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이어지는 후속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관심,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찾아보아야 한다.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독서의 양보다는 독서의 질에 대한 정보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록에 따르면 모두 훌륭한 학생들이라서 오히려 차별화되지 않는다. 천편일률적인 기록에서 벗어나 학생별로 차별화된 기록을 만들려면 여러 교사의 관찰과 평가가 누적된 기록이 필요하다. 교사들 사이의 협력과 소통, 상시 기록과 누적 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 학생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 방법의 도입, 학교 프로그램의 축소와 학생 참여도의 제고가 필요하다.
- 검은 선이 대학의 평가 항목과 학생부 항목 사이의 강한 관계를, 검은 점선은 약한 관계를, 그리고 붉은 선은 앞으로 고등학교가 학생부 항목에 확충해야 할 정보를 의미한다.



- 대학이 기대하는 학생부 항목과 대학의 평가 항목의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고등학교 학생부 항목	대학의 평가 항목
수상 경력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개인적 소양
자격증 및 인증, 진로희망	개인적 소양
창의적 체험활동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개인적 소양
내신	학업 역량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개인적 소양
독서활동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개인적 소양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개인적 소양

- 이 관계를 학생부 종합평가의 항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개인적 소양
평가세부사항	교과 학습능력 (이해와 암기) 지식의 누적 지식의 양과 확장	교과 지식의 활용 지적 호기심과 의지 자기주도성 (적극성과 능동성) 비판적 사고력	배려와 나눔 협동과 포용 모험심 상상력
학생부영역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내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진로희망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생부의 정보 : 사실의 기록 + 관찰과 평가의 기록이다. ① 사실의 기록을 두 섹션으로 나누어, 학교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과 활동, 그리고 학생 개인이 학교 프로그램 내에서 수행한 활동과 학교 프로그램 밖에서 행한 활동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 개인이 수행한 것을 관찰하여 기록하면 그것이 관찰과 평가이다.
- 기존의 학생부가 학교 공통, 학생 개인의 노력, 관찰과 평가 중 어느 항목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통한 학생부 정보의 생산과 학생부를 통한 대학의 학생 선발 사이에 일관된 관계가 나타난다.
- “모든 것”을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은 교사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잡혀있으면 학생이 참여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것”은 학생 스스로도 배우고, 또 “어떤 것”은 학생이 동료를 가르치는 일과 평가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율활동은 이름 그대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해야 한다.

3. 학생부 정보의 재구조화 : 각 항목의 연결과 교사 간 소통

- 현재 학생부 기록은 학교와 교사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학생부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슨 교육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교사는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만 기록한다는 뜻이다. 그 학교 학생부에는 학생에 대한 정보는 없으며, 학생의 내신 성적을 알려 주는 역할만 수행한다.
- 모든 고등학교와 교사가 학교 중심 기록에서 학생 중심 기록으로 학생부의 성격을 바꾸어야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지될 수 있다.

- 고등학교 학생부 항목과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항목 사이의 관계는 다대다(多對多)의 대응 관계이다.
- 지적 호기심과 의지를 갖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스스로 묻고 탐구하는 학생이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 고등학교 교육에서 육성해야 할 학생의 모습은 지적 호기심과 의지 - 지식의 누적 - 지식의 활용이라는 세 항목의 융합에서 찾을 수 있고, 대학의 평가 체계는 학업 역량 - 학업 태도 - 개인적 특성이라는 세 평가 항목이 융합되어야 그러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육과 선발이 학생부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 학생부 정보의 재구조화 : 기존 학생부의 각 항목에 기록할 정보를 변화시켜서 항목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학생 중심의 새로운 학생부 : 교과 학습발달상황을 토대로 학생부 각각의 영역들이 서로 연계된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 교과와 연계하지 않고도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 수 있지만, 활동과 교과의 연계에 더 집중해야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다.
- 1학년 1학기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주제들과 한 학기 동안의 특강, 탐방, 탐구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등의 학교 교육 활동은 기획 단계부터 연계되어야 한다. 수행 평가의 활성화를 통해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루어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이 실행된다면 교과 학습의 확장과 심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수능과 내신 때문에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활동에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이 풀고 있는 문제와 연관된 수학적 개념을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¹²⁾ 다른 교과에서도 정해진 답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보다는 그러한 답이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는지 학생 스스로 탐구해 보도록 유도하고, 다른 답까지도 찾아보도록 허용해야 우리의 학교교육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학생 중심의 학생부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 정규 교육과정과 학생 활동의 연계 및 수업 방법의 변화
 - 학생 정보의 상시 누적과 교사 간 학생 정보의 공유
 - 학생 주도로 기획되고 실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 문제풀이식 시험이 아니라 한 학기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대회에서의 수상
 - 각종 수상을 위한 평가 과정에 학생도 참여
 - 학생 주도의 독서활동
 - 수상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양 축소
- 교사의 업무를 줄여야 학생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만들어진다. 그런 다음 학생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누적하여 교사들끼리 공유하고 각자 작성된 학생부를 학년의 모든 교사가 같이 펼쳐 놓고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관찰한 학생의 발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모든 교사들이 모여서 기록하면 학생에 대한 정보가 더 풍성해진다.
- 각종 수상을 위한 평가과정에 학생이 참여하고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수상을 통해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을 담을 수 있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려면 교사들끼리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더불어 같이 배우고 성장 - 교학상장(敎學相長) - 하는 학교 문화가 필요하다.
- 교과와 연계된 학생부 항목의 조합
 - 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수상
 - ②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수상 + 창의적 체험활동
 - ③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수상 + 독서활동
 - ④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수상 + 창의적 체험활동 + 독서활동
 - 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
 - ⑥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독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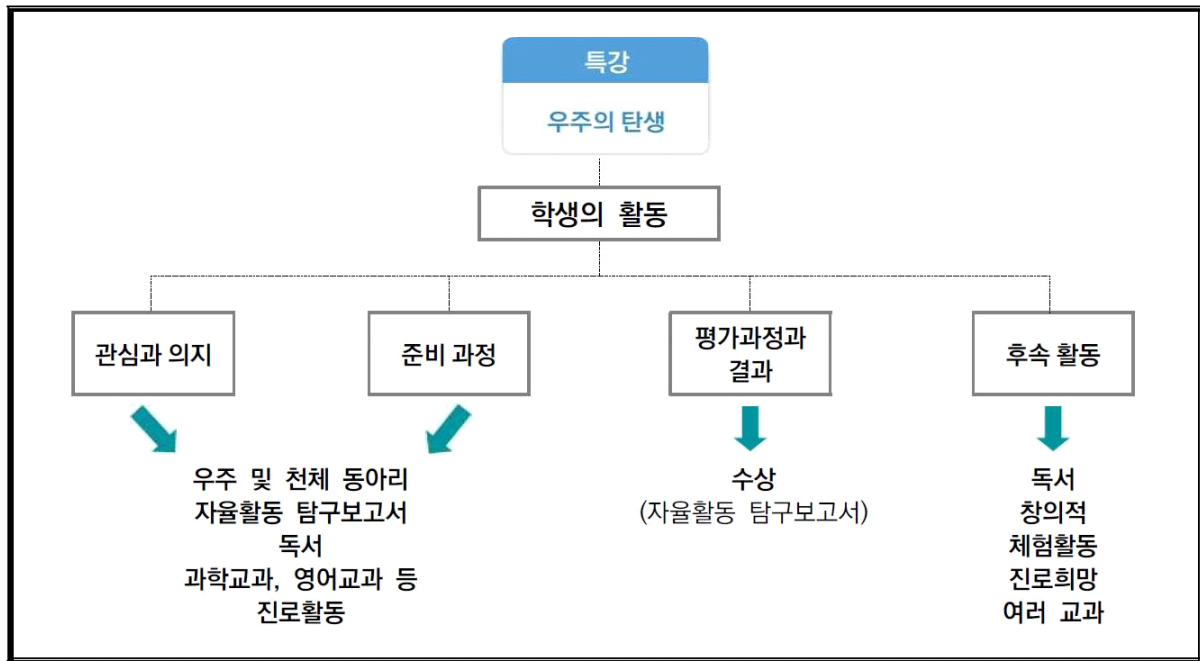
- ⑦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 + 독서활동
- 교과와 연계되지 않은 학생부 항목 간 조합
 - ⑧ 수상 + 창의적 체험활동
 - ⑨ 수상 + 독서활동
 - ⑩ 수상 + 창의적 체험활동 + 독서활동
 - ⑪ 창의적 체험활동 + 독서활동

3.1. 조합 ① :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수상

- ① 교과 지식을 시험 형태로 단 시간에 평가하여 시상하는 형태 : 문제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지 않거나 매우 넓게 하여 학생이 주어진 교과 지식을 토대로 오래 생각해서 답을 쓸 수 있는 논술형 문항으로 출제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하다. 그래야 내신과 차별화된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 ② 수행 평가 준비과정과 결과를 오랜 기간을 두고 평가하여 시상하는 형태 : 수행 평가의 활성화를 전제로 한 학기에 걸친 각 교과별 수행 평가 활동을 두고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과 평가를 거쳐 상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수행 평가를 위한 과목과 주제 선택, 준비 과정과 결과를 통해 교사는 학생이 학업 동기와 의지, 그리고 학업 역량을 키워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그 수행 평가가 다른 학기에 같은 과목의 후속 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다른 과목에 적용될 수도 있다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는 더욱 부각될 수 있다. 특히 수상을 위한 평가과정에 학생들도 참여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평가 과정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적극성과 자기주도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차별점이 된다. 수상이 내신처럼 개별 교과 학습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식 평가가 아니라, 논술, 토론, 교과 융합 활동 평가로 전환되면, 수상 실적은 현재처럼 대회 이름, 일시, 수상 등급이 기록되었지만,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생의 특성에 대한 정보 즉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적성, 그리고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기록될 수 있다.
- ③ 교과와 연동하지 않고 교내 활동만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형태

3.2. 조합 ②, ③, ④ :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수상] + (창의적 체험활동) + (독서)

- 교과는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지식을 포괄하고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지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수상은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열린 평가의 결과이다.
- 창의적 체험활동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연동시키고, 그 활동 내용을 수상 경력에서 기록할 수 있다는 발상의 변화가 중요하다.
- 학생은 주어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독서를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 교사는 그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비록 수상을 못한 학생이라도 그 과정을 통해 학생이 성장했다고 교사가 판단한다면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다.
- 학생에 대한 정보가 만들어지려면 학기 초에 계획에 따라 그 학기 교육과정과 특강이 구성되었을 때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강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각 교과별로 수업내용 및 수행 평가와 연계된 특강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공지하여 모아야 한다. 그 가운데 진로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진로희망에 대한 준비 활동을 겸하는 셈이고, 아직 진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학생에게는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강 준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책을 읽거나 정보를 수집하여 특강에서 질문할 내용들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한 보고서 혹은 답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 학기에 여러 교과에서 진행된 특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던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이 같이 평가하여 시상을 한다면 학생부 각 항목에 이 활동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담을 수 있다.



-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다른 교과와 연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동아리활동과 연계하여 그 활동 내용을 축제에서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을 할 수도 있다.
- 교과-비교과 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의 관심과 의지인데, 이를 자극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교사가 해 주어야 한다.

3.3. 조합 [5], [6], [7] :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 + (독서)

-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과 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축제, 수련회,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결하여 학습 경험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하여 책을 읽은 경험을 독서활동에 기록한다.

3.4. 조합 [8], [9], [10], [11] : (수상) + (창의적 체험활동) + (독서)

- 자율탐구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은 학업 역량과 태도와 연결될 수도 있고, 개인적 특성과 연결될 수도 있다.
- 지난 학년이나 학기에 진행하였던 교과 관련 탐구활동, 동아리활동, 독서를 올해나 다음 학기에 이어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과목이 없을 때에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기록할 수도 있다.

3.5. 학생부 정보의 재구조화를 위한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사례

- 학생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는 교과발달상황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알려준다. 그래서 수업을 통한 학생 정보의 생성이 이 모든 연계의 출발점이다.
- 학생부 정보의 재구조화는 수업에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학생의 학업 역량이 성장하는 과정을 교사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 만약 수학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이 있다면 학년 말에 교사가 학생과 상담을 하고 학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다음 학년에서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조언을 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학생의 다음 학년 수학 점수는 학생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이 학생의 수학 점수가 올랐고 그 과정을 다음 학년의 수학 교사가 기록한다면 학생이 수학 공부를 통해 학업 역량이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된다.
- 내신 성적에서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려면 단지 ‘열심히’ 하였다는 표현보다는 교사의 관찰과 평가

그리고 학생과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

수업		평가		기록
○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교과 내용 - 의사소통능력 - 창의력 - 과학적 탐구능력		○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 교과 내용 - 의사소통능력 - 창의력 - 과학적 탐구능력		- 관찰은 그날 입력하기 - 자유롭게 기록하기 - 지필평가 서술형 평가 채점에서 뛰어난 대답 기록해 두기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강의 + 토의 - 과제연구 / 실험 / 조사 - 협동학습	⇨	○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지필평가 / 발표평가 - 관찰평가 / 동료평가 - 면담 / 보고서평가	⇨	- 동료평가 활용하기 - 수업에서 가르치려는 요소들 잊지 말기 - 연구과정에서 수업 준비도와 수업에 임하는 태도 기록하기

Ⅲ.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평가

- 기록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 학생 개인의 활동 내용, 노력 과정, 성장하고 있는 모습. 강의 개설의 동기, 어떤 자료를 정리했는지, 학생이 선택한 효과적인 강의 방식은 무엇인지, 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누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기록. 자신의 학업과 개인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학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은 그 항목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거나, 다른 항목과의 연결성을 확보하여 학생 개인이 수행한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Ⅳ.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제언



- 학생부의 기록 개선을 위해서는 수업 방법의 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 2016년 1월에 진행한 고교-대학 연계 ‘샤’교육 포럼의 토론문 중에서 오상고 배태식 선생님의 제언 : “암주주법(암기식, 주입식, 주요과목)인 학교 수업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학입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암주주법 수업 대신에 학생이 만들어 가는 수업(협력학습과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실험실습, 토론과 모둠 발표, 과제연구, 프레젠테이션, 통합교과적인 주제별 수업,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계발하는 수업, 융합적 사고력,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도덕적 판단력, 협동심, 타인에 대한 배려심, 설득력을 기르는 수업)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재구성되고 이에 따라 수업이 바뀌면 다양한 형태의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특징이나 변화 등이 특기 사항에 기록되고 시험 성적과 마찬가지로 평가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와 발전 방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중심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학교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수업방법의 변화가 학교 중심 학생부 기록에서 학생 중심 학생부 기록으로의 변화를 가져온다.
- 현재의 대입 구조는 ‘학교 현장을 황폐화하고 사교육을 유발하지만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수능’ vs.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생 중심으로 바람직한 교실 수업을 가져오지만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립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수능과 학생부가 대립되는 이유는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동시에 대비하기 어려운 학교 현실 때문.

제언 ① 수능 영향력의 약화 혹은 자격 고사화

제언 ②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교-대학의 공동 노력

- 2017년에 결정하기로 예고된 2021학년도 수능 체계, 성취평가제, 대입 제도 : 대학입시의 흐름을 수능 중심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학생부로 가져갈 지는 2017년에 정부가 결정한다.
- 수능의 불공정성은 선택과목 없이 모두가 동일한 시험을 치르거나, 아니면 수능 점수로 합불이 갈리지 않게 해야 해소된다.
- 고등학교의 시각에서 대학이 불공정해 보이는 이유 : ① 학생부에 담긴 정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고등학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②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고등학교에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 대학이 바라보는 고등학교 학생부 기록의 불공정성은 학교와 (담임)선생님에 따라 학생부 기록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학교 간 차이와 학교 내 교사 간 차이가 모두 불공정성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다.
- 대학은 평가 결과를 고등학교와 소통하여 무엇이 평가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명히 하고, 교육청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부 기재에 대하여 고등학교를 도와주는 학교컨설팅을 강화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학교 간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
- 학교 내 교사 간 차이는 교사들의 의지와 단위 학교의 학생부 기록 관리체계에 따라서 최소화할 수 있다.
-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전체의 기록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1학년부터 기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교사에 따른 기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은 교사들이 학생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만들고, 학생과 관계된 교사들이 다함께 학생부를 기록해 가는 학교 내 절차를 명문화하는 데 있다. 학급담임 혹은 교과담임 혹은 특정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들 모두는 학생 개인에 대한 기록을 누적하여야 한다.
- 여러 교사가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에 대해 기록하면 내용이 풍부해지고 객관성도 높아져서 학생부 기록에 대한 교사 간의 편차에 대해 불만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부가 만들어지는 절차와 책임은 학교장이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인해야 한다.

제언 ③ 교사 간 학생 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 만들어지는 학생부 기록 시스템

제언 ④ 학생부 관련 지침과 기재요령의 전면 개편

- 단위 학교는 학교 행사를 천편일률적으로 기록하는 관례를 없애고 수상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양을 축소하는 데 힘 써야 학생 중심의 학생부가 만들어지는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제언 ⑤ 학교 내 수상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양 축소

제언 ⑥ 학교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변화

- 대학이 원하는 학생부의 정보 : 개별 학생의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학교의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변화를 통한 사실의 기록(학교 프로그램 + 학생 개인의 활동)과 관찰·평가의 기록이다.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행한 교육 활동에서 ‘바로 그’ 학생이 수행한 사실을 관찰하고, 그것을 평가한 내용을 기록했을 때 비로소 학생을 중심으로 기록한 학생부라고 할 수 있다.
- 학생 중심의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다음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이 뭔가를 했을 때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의 기록이 학생부 각 항목에 골고루 나눠 기록되게 된다. 결국 학생부 기록의 핵심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다.
 - ① 정규 교육과정 수업의 방법의 질적 개선
 - ② 교과 수업과 학내 활동의 연계
 - ③ 학생 주도로 기획되고 실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독서활동
 - ④ 문제풀이식 시험에 의한 수상이 아니라 한 학기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수상
 - ⑤ 각종 수상을 위한 평가과정에 학생도 참여
 - ⑥ 학생부에 학교 행사 기록 배제 혹은 학생 개인의 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모든 교사가 학생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이러한 방식의 기록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학생부와 수능 가운데 학교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는데 있다.